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3년도 제43호

스포츠윤리센터

‘학교 스포츠 폭력’ 피명드는데, 징계처리 기한이 없다고?

이정은 KBS기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047명 자격 취소되기도

지난 3년간 체육지도자 3197명 범죄로 자격 취소...성범죄만 500여명

신재현 뉴시스기자

부산발 ‘아침운동’ 전국 확대도 추진

초 1·2 에 ‘체육’ 별도 교과 만든다..중등 스포츠클럽 시간도 30% 확대

최은경 조선일보기자

[성명]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10월 27일)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의 인권침해, 실효성 있는 지침 마련하라

에이블뉴스

"남현희와 결혼 예정" 밝혔던 전청조씨도 학원 운영 관여한듯

남현희 펜싱학원서 코치 성폭력 정황에도 신고 등 미조치 의혹

이의진 연합뉴스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학교 스포츠 폭력’ 피명드는데, 징계처리 기한이 없다고?

팀 내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철인 3종 고 최속현 선수 사건.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으로 2017년과 2019년 경주시청 소속으로 활동하다 구타 등 가혹 행위를 당하다 2020년 6월 26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런 체육계 폭력과 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2020년 문을 연 곳이 스포츠윤리센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아 직접 조사한 뒤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각 체육 단체에 징계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을까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을 통해, 센터가 생긴 뒤 전국 초중고대학교 내 운동부 관련 신고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살펴봤습니다.

■ "얼굴에 침 뱉기까지" ...여전한 체육계 인권침해

스포츠윤리센터는 한 학교 축구팀 감독 A 씨가 2021년 아이들을 폭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조사해보니 A 씨는 학생들을 줄 세워놓고 잇따라 뺨을 때리고, 심할 때는 학생 얼굴에 침까지 뱉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기에서 부진했다는 이유 등이었습니다. 부상으로 경기를 뛰기 어려운 학생에게 경기를 뛰게 하고는 '경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정강이를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센터는 조사 결과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으며, 관할 체육회에 A 씨를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A 씨는 영구 제명됐습니다.

■ 법원서도 성추행 인정됐지만...징계는 아직

이 경우는 비교적 신속히 처리된 사례입니다. 하지만 모두 그런 건 아닙니다. 한 학교에서 철인 3종 경기의 코치를 맡은 B 씨,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B 코치는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외국으로 전지훈련을 나가 학생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단둘이 있을 때 마사지를 해준다는 핑계로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성추행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법원 판결을 토대로 성추행 혐의가 모두 사실로 보인다면, 올해 1월 B 코치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을 해당 체육 단체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체육 단체는 B 씨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의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 78건의 징계 요청...절반은 '감감무소식'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이후, 전국 학교 내 운동부에서 인권침해 등의 신고가 접수된 뒤 처리된 사건은 모두 82건입니다. 이 가운데 4건은 수사 의뢰로 이어졌고, 나머지 78건은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각 체육 단체에 징계요청서가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징계요청 가운데 절반인 39건은 징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불투명한 '미 회신' 상태입니다. 문체부가 징계요청 공문을 전달하고 수차례 독촉하는 공문도 보냈지만, 각 체육단체들이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겁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 단체가 징계에 대한 처분 자체를 하지 않아 결과가 돌아오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2021년에 징계요청이 있었는데도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장기 미처리 사안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해당 체육단체가 징계요청을 언제까지 회신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체육계 비리와 악행 근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는 체육 단체가 징계 처리 결과를 90일 안에 문체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지만, 현재로서는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이 개정안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하고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체육계 인권침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거란 의견이 나옵니다.

지난 3년간 체육지도자 3197명 범죄로 자격 취소...성범죄만 500여명

최근 3년간 3000여명의 체육 지도자가 범죄를 저질러 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500여명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인권침해 및 스포츠 관련 비리 연루자 명단 법 제정 이후에도 명단 공개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이 23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관련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2022년 자격이 취소된 체육지도자는 총 3197명이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제11조5항과 12조는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로 성범죄, 아동학대를 저지르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격 지도자 등에 대해 자격 취소를 명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인원이 3000여명에 이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2020년 1504명, 2021년 736명, 2022년에 957명이 해당 법에 저촉돼 체육지도자 자격을 상실했다.

3000여명의 자격 취소자들 가운데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지도자 자격을 잃은 이들이 많았다.

도로교통법 위반이 1047명, 기타(정산 부적정으로 처분 받은 경우) 840명, 성범죄 540명, 사기 402명, 폭행 251명이 뒤를 이었다. 마약 56명, 살인 11명도 존재했다.

종목별로는 보디빌딩 자격 취소자가 712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태권도 504명, 수영 279명, 기타 267명, 축구 166명, 배드민턴 152명 등 순이었다.

문체부는 2021년 6월 국민체육진흥법에 스포츠비리에 연루된 지도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지만, 조항 신설 이후 2년이 넘도록 지도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한해에만 957명의 체육지도자가 범죄에 연루돼 자격이 취소됐지만 법이 모호해 명단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체부의 입장이다.

이에 류호정 의원은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위 체육지도자를 현장에서 배제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을 개정했지만 2년 반이 지나도록 한건의 조치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시 문체부는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와 명단공개로 통해 엄벌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내며 홍보했었지만, 정작 시행은 하지 않았다"며 "부처의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초 12에 '체육' 별도 교과 만든다. 중등 스포츠클럽 시간도 30% 확대

교육부가 학생들의 신체·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초등학교 1~2학년 교육 과정에 '체육' 교과를 따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활동도 지금보다 30% 늘린다. 학교 내에서 체육활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2028년까지 학교 내 수영장도 300개 추가 설치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2024~2028)'을 30일 발표했다.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학교 내 체육 활동 기회를 최대한 늘리고 정신 건강 검진 및 치료를 확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학생들이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체력은 떨어지고 정신 건강은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우선 초등학교 1~2학년이 신체활동 수업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금은 없는 '체육' 교과목을 별도로 분리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초1~2학년에 도입되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르면 학생들은 '즐거운 생활'이라는 통합과목을 2년간 400시간 공부하게 된다. 이 과목을 맡은 교사가 수업 시간을 약 3분의 1씩 나눠 미술, 음악, 체육(신체활동)을 가르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초 1~2 학생들은 2년 간 신체활동 수업을 현행 80시간보다 많은 144시간을 듣게 됐다. 하지만 교사의 자체 판단에 따라 수업 진행 과정에서 조금씩 미술·음악·체육 수업 분량이 조정될 수 있어 분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체육계에선 꾸준히 나왔다.

교육부는 앞으로 '체육' 교과를 '즐거운 생활' 교과와 분리해서 수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가 분리되면 약 40년 만의 일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체육 교과를 별도로 분리할 경우 일정 수업 시간이 확보되고, 체육 전담 교사를 따로 둘 수 있다"며 "또 체육 수업을 보조하는 초등 스포츠 강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초등 스포츠 강사는 학생들이 체육 활동에 좀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고용하는 일종의 체육 수업 보조 교사다.

중학생의 체육 활동을 늘리기 위해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의무 교육 시간도 현행 102시간에 136시간으로 30% 가량 더 늘린다.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은 일종의 체육 동아리 활동이지만, 교육부는 3년 간 이행해야 하는 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학업 때문에 체육 활동이 뒷전이 되기 쉬운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10학점은 반드시 체육 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수업 전 아침 운동' 등 틈새 시간을 활용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2025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교육청의 '아침 체인지(體仁智)' 정책과 같이 희망하는 학생들이 아침·점심·방과후 틈새 시간을 활용해 간단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가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도록 하는 것이다.

또 학교 내 체육 공간 확보를 위해 학교복합시설을 올해 39개에서 2027년 200개로 확대한다. 현재 164개인 학교 내 수영장은 2028년까지 300개 더 늘릴 계획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욱 악화되고 있는 청소년 정신 건강 회복 대책도 포함됐다. 위기 청소년을 가려내기 위해 매년 초1, 초4, 중1, 고1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서·행동 특성검사' 도구를 내년까지 업그레이드 하고, 이 결과를 학부모에게 온라인으로 알려주기로 했다. 현재는 우편으로만 결과를 통보해 학부모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아이들 스스로가 힘들 때 자가진단이 가능하도록 '마음건강 진단 앱'도 개발할 방침이다.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의 인권침해, 실효성 있는 지침 마련하라

에이블뉴스

2023.10.27

지난 10월 2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장애인 당사자인 김예지 의원을 통해 천인공노할 사실이 밝혀졌다. 그것은 바로 시각장애인 구기종목인 '쇼다운'의 국가대표 선수 조현아 씨가 코치진으로부터 모욕·유기·방임 등의 학대를 받은 사실이다.

지난 8월 영국에서 열린 버밍엄 IBSA 대회에 출전한 조 씨의 주장에 의하면, 코치진으로부터 화장실 불일과 같은 기본 생리현상 처리조차도 제재를 받았으며, 경기 당일날에 아무런 사유 설명 없이 홀로 방치됐다고 밝혔다.

조 씨는 "황태민 감독은 갑자기 잠시만 있으라고 한 뒤 어디론가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며 "제가 경기를 할 차례가 됐는데도 아무도 오지 않아 주변의 도움을 받아 경기장에 입장할 수 있었다."라고 털어놨다.

시각장애인에게 안내인 없이 타 지역, 그것도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 버려졌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일인데, 조 씨는 자기를 가장 잘 보호하고 이끌어주어야 하는 코치진한테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이다.

피해자는 조 씨뿐만이 아니었다. 코치진들은 지난 7월부터 훈련 과정에서부터 부상당한 선수에게 치료비를 직접 부담하게 하였고, "너희들은 왜 시각장애 말고도 어디 하나 멀쩡한 곳이 없냐?" 는 등의 심각한 언어폭력이 있었다. 또 코치 중 한 명은 선수들에게 "멤매한다.", "혼난다" "맞는다" 등 비존중적인 언행을 하며, 엉덩이를 툭툭 치는 성추행까지 한 것이다.

경기가 모두 끝난 뒤 출국하기까지 약 3일 동안에는 선수들의 식사를 챙기지도 않고 코치 이 씨에게 선수들을 모두 떠맡긴 채 관광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의 인권 침해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장애인 체육선수들의 인권실태 발표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체육선수 중 폭력이나 학대 피해 경험자는 354명(22.2%), 성폭력 피해에 대한 경험도 143명(9.2%)으로, 많은 선수들이 성폭력 등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당하고, 스포츠 활동 과정에서 차별과 거부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선수들이 협박이나 욕,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과도한 훈련이나 기압, 열차려 등 체벌과 구타(폭력)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국가들은 장애인 운동선수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인 지침과 제도들을 정비한 상태이다.

영국 장애인 스포츠 연맹(English Federation of Disability Sport)은 10가지 정책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독자적인 장애인 선수들의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 및 평가를 통해 장애 운동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가지 정책표준을 살펴보면, 장애인 운동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장애인 스포츠 환경의 주체인 장애인 운동선수와 지도자를 비롯하여 부모에게 장애인 운동선수의 인권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서 볼만한 것은 체육회 운영규정이다. 가맹단체에 문제가 생겨 상위조직에 문제를 제기해도 조사 후에는 체육회 규정상, 징계를 주는 주체가 다시 가맹단체로 돌아가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식구 감싸기로 솜방망이 징계로 끝난다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이에 합리적인 징계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징계부분에 대한 정관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전체적으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장애인은 더 이상 학대와 폭력의 대상이 아니다. 이제, 우리나라 정부와 체육계도 끊이지 않는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 좌시하지 말고, 강하게 처벌하고 재발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의 인권 보장과 운동 선수로서의 양질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이번 '쇼다운' 선수들의 학대 사건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가해자들 전원을 엄벌하라!

하나,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 운동선수들의 인권실태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장애인 운동 선수들의 인권침해를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과 제도들을 조속히 마련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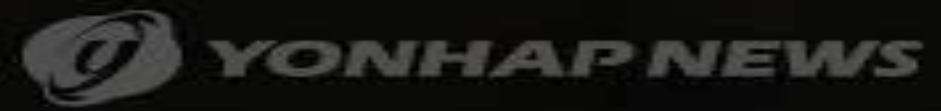
하나,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라!

2023년 10월 27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자료 출처: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240>

남현희 펜싱학원서 코치 성폭력 정황에도 신고 등 미조치 의혹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지도자의 성폭력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제때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구에 있는 남현희 인터내셔널 펜싱아카데미에서 일하던 지도자 A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피해자 측 고소가 지난 7월께 경찰에 접수됐다.

A씨는 고소가 이뤄지고 나서 수일 후인 7월 초 원내에서 성폭력 의혹이 공론화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약 3개월 후인 지난 10일 스포츠윤리센터에도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센터는 사설 학원의 대표인 남현희가 이런 문제를 이미 인지하고도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신고도 추가로 접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센터에 따르면 남현희는 관계 기관에 제때 원내 성폭력 사태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4 ②항을 보면 지도자·선수·이외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선수 관리 담당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 혹은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뿐 아니라 사설 학원의 운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센터 측은 남현희나 펜싱 아카데미 측으로부터 성폭력 문제에 대해 별도로 전달받은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남현희는 최근 월간지 여성조선과 인터뷰를 통해 '남자친구' 전청조 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인터뷰에 함께 참여한 전 씨는 재벌 3세이자 부상으로 은퇴한 승마 선수, 청년 사업가 등으로 소개됐다. 그러나 인터뷰가 공개된 직후 전 씨에게 거짓 성별·사기 전과·재벌 3세 사칭 등의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로 과거 '여성'인 전 씨가 남자 행세를 하거나 법인 회장 혼외자인 척하며 상습적 사기를 저지른 사실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

자신의 이력을 알게 된 남현희가 이별을 통보하자 전 씨는 남현희의 어머니 집까지 찾아갔다가 26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전 씨는 펜싱아카데미 운영에도 적지 않게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 씨는 여성조선 인터뷰에서 '펜싱 아카데미에서 (남현희와) 같이 일을 하니깐 (최근) 자주 봤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남현희는 펜싱 아카데미에서 전 씨의 구체적 업무에 대해 "내가 저마다 이유로 펜싱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가르친다면 청조 씨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심리 교육을 예체능으로 다루는 사업을 한다"고 설명했다.

주간 스포츠 소식

[국감] 문체위, '대한체육회' 등 6개 공공기관 국정감사 실시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746151>

여주시 '2023 한중일 이스포츠 대회' 12월 개최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030_0002501469&dID=10899&pID=10800

'BGMI 한국-인도 인비테이셔널' 이스포츠 친선전 성료...문화교류도 활성화

<https://game.mk.co.kr/view.php?year=2023&no=829996>

데일리스포츠한국, 제5회 대한민국 생활스포츠대상 공모

<https://www.yna.co.kr/view/AKR20231030052100007?input=1195m>

스포츠윤리센터 '공금유용 혐의' 전 경북당구연맹 회장 등 3명 형사고발 결정

<https://mkbn.mk.co.kr/news/view.php?year=2023&no=818454>

프로축구선수협, 성남FC와 '스포츠인권 발전 세미나'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1024580110>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서 '드림패럴림픽' 열린다

<https://www.jnilbo.com/71802179712>

징계 요청만 하면 뭐하나... 체육계 비리·인권침해사건 절반이 '계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02313370004022?did=NA>

이흥규 양주시공사 사장 '2023년 전국 우수장애인 친화체육시설' 선정

<https://www.breaknews.com/995101>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